

 국토교통부	<b>보 도 자 료</b>		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	배포일시	2016. 7. 11(월)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 뉴스테이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상문, 팀장 전성배, 사무관 박영주 • ☎ (044)201-4109, 4475, 4100	
보 도 일 시	2016년 7월 12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방송인터넷은 7. 11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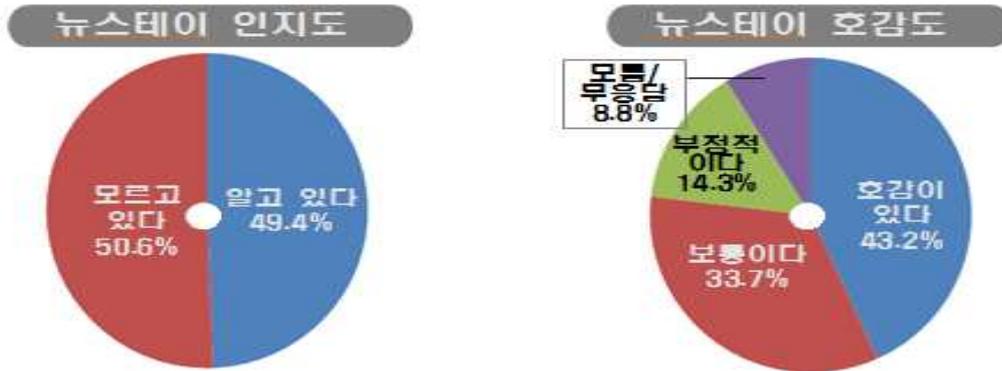
## 뉴스테이(New Stay), 뉴 트렌드(New Trend)로 자리잡아

- 전년대비, 인지도 28.2%→49.4%, 호감도 35.1%→43.2%로 상승 -

- 최근 실시한 ‘상반기 뉴스테이 정책 인식조사’ 결과 뉴스테이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절반이 정책을 알고 있으며, 입주의사 여부를 밝힌 임차가구의 67.5%가 뉴스테이 입주 의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.
- 조사결과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49.4%, 호감도는 43.2%로 나타났으며, 이는 작년 조사 때보다 각각 20.2%p, 8.1%p 상승한 수치이다.
  - 기업형 임대주택을 육성하고자 도입된 뉴스테이 정책이 도입 2년 차를 맞아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뛰어넘어 국민들의 인식 속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가 지난 6.17일부터 6.24일까지 한국갤럽에 의뢰해 수도권 및 4대 광역시 1,000명(30~50대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)을 대상으로 실시한 뉴스테이 정책 인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.
  -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인식수준에 관한 물음에 대하여 응답자의 49.4%가 ‘뉴스테이 정책을 알고 있다’고 응답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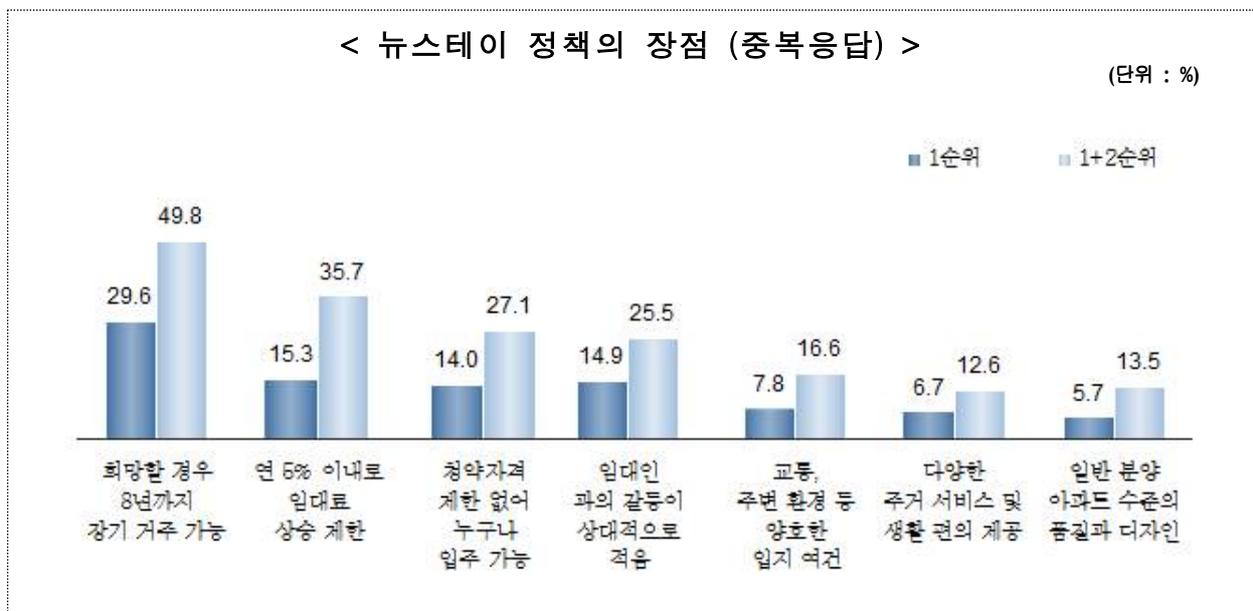
- 통상적으로 정부 정책의 경우 인지도가 30% 이상을 넘기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, 정책 도입 2년 만에 인지도가 약 50%에 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.

○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호감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3.2%가 '뉴스테이 정책에 대해 호감이 있다'고 응답하여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의 비율 14.3%를 크게 초과하였다.('무응답' 및 '보통' 42.5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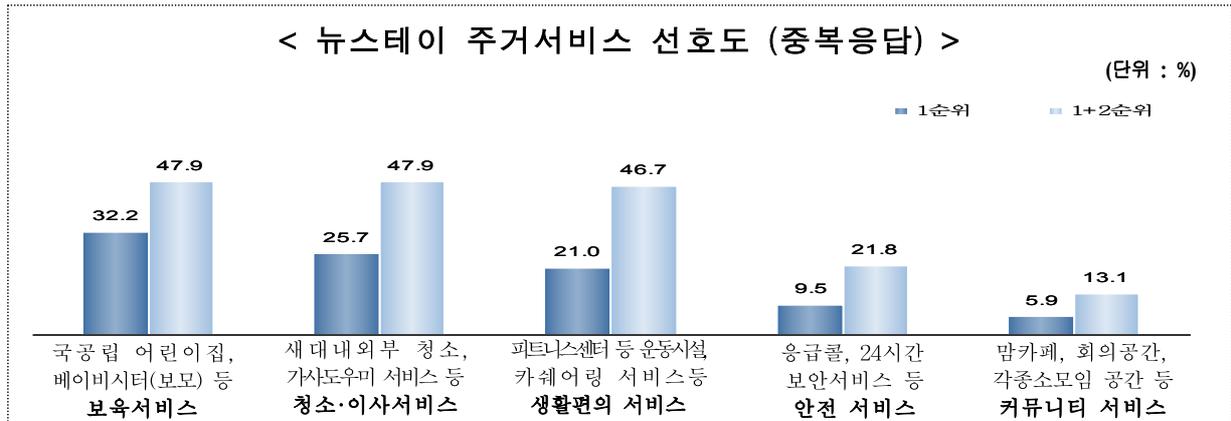


○ 입주 의사 여부를 밝힌 응답자들 중 47.1%는 '뉴스테이에 입주 의향이 있다'고 답하였으며 특히, 임차가구 거주 응답자들 중 입주 의향을 보인 비율은 67.5%에 달하였다.

- 뉴스테이의 장점에 대한 선호는 '희망할 경우 8년까지 장기 거주 가능', '연 5% 이내로 임대료 상승 제한', '청약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입주 가능'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(중복응답 기준)



- 한편, 뉴스테이가 제공하는 주거서비스 선호도는 ‘국공립 어린이집, 베이비시터(보모) 서비스 등 보육서비스’, ‘피트니스 센터 등 운동 시설, 카셰어링 서비스 등 생활 편의 서비스’, ‘응급콜, 24시간 보안 서비스 등 안전 서비스’순으로 높았다.(중복 응답 기준)



- 그 중 보육서비스는 연령이 낮을수록, 생활편의 서비스는 연령이 높을수록 더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나 단지별 특화 주거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
- 마지막으로 ‘뉴스테이가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’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41.7%로 나타나,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인 21.6%의 2배에 달하였다.

□ 국토부는 이번 인식조사를 계기로 “뉴스테이 타겟층의 정책 인지도와 입주의향 등을 파악하여, 단순한 공급 확대가 아닌 정책 수혜자인 국민들의 선호와 취향을 반영한 뉴스테이를 공급하기 위해 활용하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정책과 박영주 사무관(☎044-201-410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